

디아스포라 여성의 지혜

-고려인 여성의 '삶'으로 읽는 잠언 31장-

박혜경*

들어가는 말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의 망상으로 인해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고려인들의 역사를 되짚으며 그들과 대화나누길 원하는 필자는 디아스포라의 ‘생명성’(生命性)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고려인들이 다시금 중앙아시아에서 생을 이어가고, 미래 지향적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인 여성들 생애에 대해 연구하도록 필자를 초대한다. 먼저 고려인 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에 본 연구 과제를 잡게 되었으며, 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또 다른 강제 추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바라는 심정에 기인한 것이다.

추방당한 고려인들의 무리에서 스탈린 전체주의의 강압적 사상에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다. 고려인 여성들은 추방 당시 추방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성원이었고, 이러한 고려인 여성들은 오늘날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사회적 기반을 이룩한 지혜의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고려인 여성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그들의 삶의 질곡에서 피어난 지혜를 발굴하며 ‘신학화’할 것이다. 지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은혜로운 역량으로, 이 ‘신학화’는 고려인 여성들의 지혜와 잠언 31장의 지혜의 ‘해석학적 대화’(hermeneutic dialogue)로 진행 될 것이다. 잠언 31장의 삶의 자리는 왕권이 무너진 이후 가정의 역할이 강조된 포로기 이후로 잡을 수 있다.¹⁾ 잠언 31장에 나타난 여인과 고려인 여성들 간에는 통시적 연대는 상이하더라도 이스라엘과 한반도 민족 간의 디아스포라라는 공시적 삶은 공유하게 된다. 각 민족의 역사적 다양함 속에서 말이다. 이와 같은 공시적 이해는 이방인 왕이었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주는 지혜를 잠언 편집자가 이미 이스라엘의 지혜로 통합시킨 편집자의 의도에서도 생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1. 전체주의의 망상과 추방인의 현실

1937년 이오시프 스탈린(Iosif V. Stalin, 1879-1953)은 연해주에 정착해 살던 한민족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 시켰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삶의 자리를 변경해야만 했던 약 18만 명의 사람들.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왕국의 ‘고려인’(高麗人)으로 살아야했던 그들. 어느 국가에 속하지 않았으며 어느 정부의 보호도 받지 못했던 고려인들. 강제 이주로 인해 규정된 정체성을 강요받아야만 했던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

20세기 여성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의 이론을 따라 분석하자면, 그들의 추방은 스탈린과 같은 전체주의 지도자 및 독재자의 망상으로 가득 찬 세계를 꿈꾸는 아주 단순한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다.²⁾ 레닌 사후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socialism

* 대만 장영대학교, 구약학

1) 레오 G. 퍼듀, 『잠언』, Interpretation, 현대성서주석 한·미 공동 주석 편집 (배정훈)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349-351.

2)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2nd enlarged ed. (Cleveland: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58), 362.

in one country)를 내세워 사회주의 역량을 집중시키며, 각 민족 개념을 무시하고 전체주의의 독재성으로 러시아를 집권하였다. 아렌트는 스탈린의 1924년 1월 28일 연설을 인용하면서 전체주의는 이념과 웅변으로 개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논리의 힘으로 개인을 조 절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³⁾ 아렌트를 좀 더 인용하자면, 전체주의 사고에서 강압적으로 응집된 논의를 만약 개인이 거부하다면, 개인은 스스로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그러한 개인은 자신이 지닌 의미를 상실한 채 삶을 산다는 것이다.⁴⁾ 이와 같이 개인의 특수성을 무시해서라도 통합적 이념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주의의 목적으로, 아렌트는 ‘전체주의’라는 구조가 개인을 파멸시키는 그 매커니즘(mechanism)을 분석, 비판하고 있다.

전체주의에 대한 이러한 아렌트의 입장은 아렌트 자신의 삶에서 체득된 진리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렌트가 바로 ‘나치’라는 전체주의에 의해 강제 이주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유대인’이라는 생태적 정체성으로 인해 망명 생활을 해야 했으며 1950년에야 비로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⁵⁾ 1933년 독일을 떠나 프랑스, 스페인을 거쳐 1941년 포르투갈 리스본을 거쳐 뉴욕으로 갈 수 있었는데, 무국적자(無國籍者)로 지내는 기간이 아렌트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⁶⁾

1940년 파리가 히틀러에게 점령을 당하자, 파리 총독은 ‘적국의 외국인을 포로 수용소로 추방시켰고, 이때 아렌트는 구르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프랑스가 패배하자 행정상 혼란 속에서 아렌트를 비롯한 ‘적국의 외국인’들은 ‘석방 허가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들에게 수용소를

3)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472-473. 스탈린의 1924년 1월 28일 연설, Vladimir Lich Lenin, *The Essentials of Lenin*, 2 vols. (London: Lawrence & Wishart, 1947), 1:33.

4)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473.

5) 양창삼, “[인물과 사상] 한나 아렌트 연구,” 『현상과인식』 9:2 (1985), 192-193.

6) 엘리자베스 영.브릴, 『한나 아렌트 전기: 세계 사랑을 위하여』, 홍원표 역 (고양: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7), 216-217.

탈출하든가 아니면 수용소에 머무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때 칫솔만을 가지고 수용소를 탈출한 아렌트는 17년이 지나 비로소 미국인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주저앉아 기다리던 사람들은 1942년과 1943년 학살 수용소로 이송되고 말았다.⁷⁾ 아렌트는 구르 수용소에서 경험한 인간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현대사가 만든 새로운 유형의 인간,’ ‘적에 의해 집단 수용소에 투입되거나 친구들에 의해 억류 수용소에 투입된 형태의 사람들.’⁸⁾ 이는 전체주의에 의해 드러난 피폐화된 인간에 대한 설명이며 나치의 전체주의가 양산시킨 감금형 인간을 뜻한다. 현대 세계사 속에서 고통받던 고려인들이야말로 스탈린의 전체주의에 의해 추방당한 새로운 유형의 ‘디아스포라’였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해방 70년을 맞아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이며 미래를 투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려인들이다.

고려인들은 아렌트가 경험한 ‘수용소’를 강제 이주 열차 안에서 체험하였다. 연해주(發) 중앙아시아행(行) 열차는 ‘검은 상자로 불렀는데, 고려인 이주를 비밀에 붙이기 위해 열차에는 창문이 없었고 문이 닫히고 나면 어두움의 공포에서 빛을 찾을 수 없었다.’⁹⁾ 이주의 명목을 명시화할 수 없었던 그들은 고려인들을 사지로 내몰았고, 고려인들은 “우리를 추방하는 이유는 단 하나, 얼굴색이 다르기 때문이다.”¹⁰⁾라는 피맺힌 절규를 하게 되었다.

스탈린은 소련이라는 거시적 전체주의의 존속을 위해 일본과의 대립구조를 유지하면서 미시적 연해주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추방시키는 강제 이주정책을 펼쳤다. 전체주의는 권력을 집중시켜 개인의 안녕을 꾀한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이는 전체주의의 망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망상이 소수민족의 생활 터전을 착취하였으며 고려인들의 생명을

7) 엘리자베스 영-브뤼, 『한나 아렌트 전기』, 274-278.

8) 엘리자베스 영-브뤼, 『한나 아렌트 전기』, 274.

9)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서울: 주류성, 2013), 180-188.

10)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183.

위협하였다. 소련 내각과 전국 불세비키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937년 8월 21일에 작성한 ‘극동지방 국경지역 한인 이주 명령’¹¹⁾은 ‘극동지방에서 일본 간첩 침투의 차단에 이주 명령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총 11개의 조항으로 이뤄진 이 명령서의 7번째 조항은 “카자흐 공화국과 우주백 공화국 내각들은 이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즉시 확정하며 그들이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만을 보면 고려인들이 이주와 함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디아스포라의 현실은 이 7번째 조항과는 거리가 멀었다.

1938년 2월부터 우즈베키스탄 우슈토베 등에 고려인 콜호즈가 조직되었는데, ‘이주민 정착 수속 절차와 지역별 배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콜호즈원들은 대부분 영성한 토굴 속에서 살았다. 그들에게는 적당한 의료 시설도 없었다.”¹²⁾고 기록되어 있다. 우슈토베의 토굴 생활에 대해서 고려인 여성 ‘주나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땅굴의 구조는 사각형으로 땅을 파서 그 사면을 벽으로 삼고 지붕은 주위에 자라던 갈대(고려말로 ‘깎’)를 엮어 덮은 다음 다시 그 위에 흙을 이겨 덮었음.”¹³⁾ 그녀의 설명대로 하자면, 당시 한인 이주민들은 중앙아시아 광야에서의 첫 겨울을 ‘토굴’(土窟)에서 시작한 것이다.

주나자가 설명한 이야기들은 디아스포라 역사의 중요 부분이며, 가려진 여성의 역사를 드러나게 만든다. 때문에 여성 역사의 이야기들은 과거로 묻히기 전에 더 발굴되어야 한다. 예컨대, 정 갈리나 드미뜨리에브나는 1937년 이주 당시 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에게 내려진 통보는 이틀 동안 옷가지와 이불을 챙겨 고향땅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짐짝처럼 기차에 실려 40여일을 지나 척박한 땅에

11) 심영섭, 김게르만, 『카자흐스탄 한인사 고문서 자료 제1집』, (서울: 알마아타 한국 교육원, 1998), 55.

12) 심영섭, 김게르만, 『카자흐스탄 한인사 고문서 자료 제1집』, 123.

13)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강제이주담에 대하여,” 『한민족문화연구』 38 (2011), 464-465.

도착하였다. 이런 강제 추방이 결국은 그녀의 가족을 산산조각 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3년 동안 고생 하시다 돌아가셨고, 오빠 역시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병사한 것이었다.¹⁴⁾

이러한 이주 현장 역사의 절반은 여성의 역사이다. 그러나 이주 여성의 ‘역사 담지자’로서의 역할은 가려져 있었으며, 특별히 고려인 이주 역사의 연구의 경우 고려인 여성 연구는 ‘민족 담론’에 가로 막혀 있었다.¹⁵⁾ 1989년 11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정책을 인정하였으며, 1993년 4월 러시아연방 최고회의가 ‘러시아 고려인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강제 이주가 지녔던 범죄적 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¹⁶⁾ 그 이후 강제 이주에 대한 역사적 사료들이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여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문헌을 통한 역사적 증빙성이 낮다고 해서 고려인 여성의 삶과 역사적 공헌도까지 무시될 수 없다. 여성들이 역사의 절반을 짊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육체적으로 강인함을 지니고 있기 보다는 그들의 ‘지혜’가 역사를 이끌고 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고려인 여성의 지혜를 저항과 교육 그리고 생명 부분으로 구분하여 잠언 31장과 해석학적 두 이야기의 합류로 이를 신학화하고자 한다.

2. 저항의 지혜 : 김일렉산드라(1885-1918)의 생애

- “착취의 쇠시슬을 끊으시오”¹⁷⁾

14) 정 갈리나 드미트리예브나, “소련 한인 강제이주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활천」 559:6 (2000), 101-103.

15) 기계형, “젠더의 시각에서 본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여성의 행위자로서의 경험과 역사적 기억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12 (2011), 69-90.

16)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348-349.

17) 이 말은 김일렉산드라가 일본군 병사들에게 고하는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하바로

고려인 여성이 낯선 중앙아시아에 정착하고 뿌리내려서 다시 러시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선조모(先祖母)들이 지니고 있었던 저항의 힘에서 그 원동력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고려인 선조모로서 노동자들을 위해 끊임없는 저항을 펼치고, 여성 혁명가로서 33년 일생을 살아간 ‘동방 열녀’¹⁸⁾ 김알렉산드라의 지혜를 탐구하고자 한다. 독립신문 1920년 4월 17일자는 김알렉산드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혁명사상으로론 대한여자의 향도관(嚮導官)
 사회주의론 대한여자의 선봉장
 자유정신으로론 대한여자의 고문관
 해방투쟁으로론 대한여자의 사표자(師表者)¹⁹⁾

연해주 의 한인의 초기 정착 역사는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²⁰⁾ 스탈린에 의해 디아스포라의 길을 떠났던 고려인들은 이미 1917년 러시아의 혁명의 영향 하에 있었다. 당시 일제 강점기를 살고 있었던 고려인들에게도 러시아 혁명은 고무적인 영향을 미쳤다. 1918년 2월 하바롭스크에서 ‘조선인정치망명자회의’가 개최되었고 1918년 4월 28일 최초 고려인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이 창설되었다.’²¹⁾ 이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 김알렉산드라 페브로브나 스탄케비치(Александра Петровна Ким-Станкевич)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김

브스크 빨치산문서보관소, 참고번호 9, 사건번호 33. 김블라지미르,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 조영환 역, 박환 편, 해제 (서울: 국학자료원, 1997), 66, 재인용.

- 18) 김알렉산드라의 여동생 최마리아가 입수한 단체사진 뒤에 적힌 문구는 다음과 같다. “이 사진을 소중히 보관하시오. 그분은 인문의 성실한 딸이었고, 조국 독립을 위해 젊은 목숨을 바친 최초의 동방 열녀였습니다. 김 여사는 1918년 9월 25일 하바롭스크에서 백군한테서 야수적으로 사살했습니다.”
- 19) 박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서울: 탐구당, 1997), 280 재인용.
- 20) 연해주 이주 원년에 대한 이론은 다음을 참조하라.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서울: 주류성, 2013), 26-27.
- 21)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74.

두서(金斗瑞)로, 그는 1869년 함경도 경흥에서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인 ‘지신하’로 이주하였다. 김알렉산드라는 추풍 영안평에서 1885년 출생하였고,²²⁾ 동청철도 건설현장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이주하기도 한다. 11살에 불과했던 어린 김알렉산드라는 건설현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약자를 위한 강자에 대한 저항과 지혜를 배우게 된다. 아버지는 철도현장의 조선인, 중국인 노동자들과 러시아 당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노동자들 편에서 사건을 해결했다.²³⁾ 그리고 아버지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면 김알렉산드라가 아버지를 대신해 통역도 하고 노동자들을 대변했다.²⁴⁾

1917년 초, 그녀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볼셰비키)에 입당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예카제린부르크 볼셰비키의 극동아시아 여성 혁명가가 된다.²⁵⁾ 그녀는 우랄 지역 나제퀸스크 벌목장에서 통역사로 있으면서 우랄노동자동맹(1917년)을 조직하였다. 이 곳에서의 김알렉산드라에 대해 김시약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1915년 나는 나제퀸스크의 벌목장에서 일했다. 어느 날 나는 목재창고의 문 근처에서 중키의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다. 노동자들은 그녀가 러시아어, 한국어, 중국어에 능통한 통역관이라고 수군거렸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노동자들을 대했고, 사업주 앞에서 그들의 권익을 옹호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인, 한인, 중국인 노동자들은 그를 사랑하고 모든 점에서 그를 신뢰했다.²⁶⁾

22)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항일여성운동 1909~1920,” 『역사문화연구』 23 (2005), 108-109.

23) 김블라지미르,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 79.

24) 이현영, “1910년대 사회운동과 김알렉산드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4), 27.

25) 김블라지미르,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 65.

26)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항일여성운동 1909~1920,” 『역사문화연구』 23 (2005년), 87-130.

김알렉산드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해 권익을 옹호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는 그녀가 브르조아 계급의 부당성을 간파하는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1918년 7월 일본군 병사들에게 전하는 그녀의 호소문에서 우리는 민족주의에 제한되지 않는 인류평화 사상을 읽을 수 있다. 전체주의 착취자들의 생태적 양상을 어느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던 김알렉산드라의 사상을 볼 수 있다.

당신들은 부자들을 위해 2년째 타국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우리들, 당신들을 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새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본가들과 장령들은 빈천한 당신들을 희생시켜 우리들의 영토와 자산을 탈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착취자의 죄수들을 끊으시오. 어서 귀국하여 부모, 형제들의 품에 안기시오. 헛된 피를 흘리지 말고 우리편으로 넘어오시오. 우리나 당신들이나 처지를 따지면 피차 일반입니다. 무산자동맹을 맺읍시다. 러시아와 일본 노동계급 만세! 전반적 평화 만세!²⁷⁾

전 세계적인 평화와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투신한 김알렉산드라는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분쟁의 희생양이 된다. 1918년 9월 하바롭스크가 일본 무장간섭군과 백위군에 의해 점령을 당하자 그녀는 중앙아시아로 가서 모스크바와 연락하려고 볼셰비키당 및 한인사회당 간부들과 아무르 강을 건너가다 백위군에게 체포되었다.²⁸⁾ 결국 그녀는 9월 25일 백위군에 의해 총살을 당하고 만다. 강 절벽에서 아무르 강물에 붉은 꽃잎처럼 떨어진 33세 김알렉산드라의 마지막 연설은 전설처럼 회자된다. “나는 죽지만 우리 위업은 꼭 승리할 것이다. 내가 13보 걸은 것은 조선의 13도를 의미한다. 때가 오면 조국의 13도에는 자유와 행복이

27) 김블라지미르, 『재소환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 66.

28) 강만길, 『강만길 역사기행 회상의 열차를 타고』 (서울: 한길사, 1999), 106.

깃들 것이다.”²⁹⁾

김알렉산드라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는 잠언 31:8에 나타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지혜의 말씀을 실친한 지혜의 여성이었다. 잠언 31장은 크게 1-9절과 10-31절로 나뉜다. 1-9절에서 르무엘은 어머니로부터 왕의 나아갈 도리를 배운다. 10-31절에서는 훌륭한 여인의 지혜로운 삶이 묘사되고 그에 대한 찬사가 이어진다. 지혜문학의 특성상 여성은 지혜담론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지혜는 여성 메타포로 특성화되어 명시된다. 그 이유는 지혜로 점철된 여성들의 능력은 통찰력과 설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³⁰⁾

특히 잠언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지혜로 양육하는 사람들로 나오는데 자녀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한다.³¹⁾ 잠언 31:1은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표준새번역)”나 “마싸(מַסָּא) 왕 르무엘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교훈(공동번역)”으로 번역되었다. ‘마싸가 북아라비아의 지역을 나타내거나 ‘경고/훈계’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³²⁾ 멜렉크(מֶלֶכֶק)의 액센트 아트나흐(ˊ)를 무시하고 ‘멜렉크 마싸’를 한 구절로 번역하면³³⁾ 공동번역과 같이 번역이 가능하며, 아트나흐를 강조하면 표준새번역으로 번역된다.

1절 상반절이 다양하게 번역된다고 하더라도 하반절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위

29) 김블라지미르,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 73.

30) Phyllis A. Bird, *Missing Persons and Mistaken Identities, Women and Gender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43.

31) Claudia V. Camp, “The Wise Women of 2 Samuel, A Role Model of Women in Early Israel?” Alice Bach ed., *Women in the Hebrew Bible, A Reader* (New York: Routledge, 1999), 201.

32) 롤랜드 E. 머피, 『잠언』, WBC 22, WBC 주석번역위원회 역 (서울: 솔로몬, 2001), 386.

33) 롤랜드 E. 머피, 『잠언』, 386.

에 오르는 아들을 위해 지혜의 말을 전하고 있다. 르무엘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방 왕’으로 여겨진다.³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이방 왕’ 르무엘 어머니의 가르침이 잠언의 대미를 장식하는 31장에 편집된 이유는 잠언이 지니고 있는 지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잠언 1장에서 9장이 잠언의 서론을 이루고 있고, 잠언 31장은 어머니의 교훈으로 잠언을 결론짓고 있다.³⁵⁾ 이처럼 잠언 서론과 결론에 등장하는 여성은 수미상관(inclusio)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잠언이 지닌 여성 지혜 강조에 기인한다.

포로기 이후 왕권의 부재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잠언 31장의 저작/편집 연대를 이스라엘 왕권이 상실된 포로기 이후인 바빌론과 페르시아 시대로 설정하면서 왕조의 부재를 가정과 어머니가 대신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³⁶⁾ 그렇다면 왕권이 부재한 이스라엘에게 이방 왕 어머니의 잠언이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잠언 편집자는 이방 왕의 이름을 유지하면서 이방 나라 대비의 지혜를 잠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르무엘 왕 어머니의 삶의 자리는 사공간을 초월한 지혜를 품고 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등장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국한된 지협적 의미의 ‘잠언’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오늘의 성서를 읽는 독자에게 해석학적 지평을 확장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김알렉산드라의 이야기 속에 드러난 지혜가 여성성을 담보하며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 이는 잠언 31장 르무엘 왕 어머니와 공시적 만남을 일으킨다. 그러한 만남은 바로 성경을 과거와 현재에 살아있는 역동적

34) 김정우, 『성서주석 잠언』,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801.

35) 박지은, “여성 지혜에 나타난 여성의 소외: 잠언 1-9장과 31장을 중심으로,” 『여성신학논집』 10 (2013), 1-2.

36) 레오 G. 퍼듀, 『잠언』, 349-351. 박지은, “여성 지혜에 나타난 여성의 소외,” 2-3.

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만들고, 미래지향적 성경 읽기의 좌표를 제시한다.

김알렉산드라는 우랄 지방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공장 측의 불법성과 재판의 부정에 대해 대항하였다. 그녀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정의를 외쳤다. “... 정의인도로 논쟁도 하여 보고 어떤 시기에는 단총을 내어 들고 위협도 하여보았다. ... 전제정치 곧 귀족, 자본 양 계급의 옹호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러시아 관헌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전문적 마귀였다. 그 까닭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리가 만무하였다. 그러나 낙망, 비관, 실패 그것이 여사의 의지를 요동치 못하였다.”³⁷⁾ 김알렉산드라의 이런 행동은 멘세비키들에게 암살 음모를 제공 하였다. 그러나 별목 노동자들은 김알렉산드라를 남자 환자로 변장시켜 별목장을 빠져나오게 하여 그녀를 살렸다.³⁸⁾

저항의 지혜는 정의로운 사회를 주장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삶의 지혜를 모으게 한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왕이 되어 권력자가 되는 아들에게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찌니라(잠 31:9).”로 교훈한다. 기득권자들이 가난한 자의 정의를 강구하지 않을 때, 전 우주적인 공의³⁹⁾는 과멸된다. 김알렉산드라와 같이 정의를 실천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저항하는 힘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의 여성들의 삶에서도 드러났다.

일제 강점기에 신한촌의 고려인들은 망명가들과 독립 운동가들을 도왔는데, 1918년 고려인 학교의 한 여자 선생님은 일본 총영사 키쿠치 요시로가 200루블의 기부금을 전달하자 불 속에 던져 버렸다.⁴⁰⁾ 안타깝게도 돈을 건넨 일본인의 이름은 전해지지만, 여 선생님의 이름은 우리

37) 뒤바보, ‘김알렉산드라 소전,’ 『독립신문』 1920. 4. 20. 이현영, “1910년대 사회 운동과 김알렉산드라,” 42, 재인용.

38) 이현영, “1910년대 사회운동과 김알렉산드라,” 42.

39) 레오 G. 퍼듀, 『잠언』, 347.

40)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106.

가 알 수 없다. 르무엘 왕 어머니의 이름을 알 수 없듯이 말이다. 정의를 위해서 저항하는 이들은 많은 경우 이름을 가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공의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나온다. 바로 ‘말하라’다. 잠언 31:8과 9의 상반절에 나란히 나오는 “너는 입을 열어”(פֶּתַח פִּי, פִּתְּחִי) 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은 명령 형으로 아들을 향한다. 대비가 왕에게 내리는 정의를 이루려는 교훈은 부탁이나 청유가 아니라 ‘명령’이다.

‘입을 열어’ 정의를 고하라는 대비의 명령은 이 세상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왕의 중요 덕목이다. 타국에서 모국어로 말하지 못해 억울함을 당하는 디아스포라인들. 교육받지 못해 당하는 부당함에 순응하는 가난한 노동자들. 여성 지혜자는 그들을 위해 ‘말하라’ 명령하고 있으며, 그 시작은 ‘저항’이었다. 김알렉산드라는 심지어 일본인 병사들이 일본 자본가들에 의해 당하는 불의함까지 대언하며 전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였다. 지혜롭게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르무엘왕의 어머니의 지혜의 교훈은 여성 혁명가로서 전 생애를 저항하며 살아간 김알렉산드라의 삶에서 드러난다. 오늘의 불의함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하면서 말이다.

3. 교육의 지혜: 석윤희, 화가 신순남(1928-2006) 할머니

- “한국의 성모 마리아”

“내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할꼬” 잠언 31:2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신과 아들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그의 교훈이 전달되길 원한다.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추방의 상처는 세대를 뛰어넘어 고려인 후손들에게 지속되었다. 르무엘 왕이 자신의 어머

니에게서 전승된 지혜를 교훈으로 삼아 기억하듯이 신순남(申順南, Николай Сергеевич Шин) 화가는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그들을 되살려내고 있다. 이름 없는 어머니들의 교육 속에 드러난 지혜가 다음세대에 지속되고 있다.

‘연해주와 우수리주(州)에서의 한인 이주 사업에 대한 특별 보고’에 의하면, 1937년 9월 10일과 11일 열차를 통해 이주가 진행되는 동안 12세 미만의 아이 두 명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⁴¹⁾ 이주 도중 위생시설이 취약하여 수많은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은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⁴²⁾ 스탈린 전체주의의 강제 추방 정책은 고려인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었다. 스탈린의 민족해체정책에 의해 강제 추방된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고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련 사회에서 다음세대로 진출하며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려인 여성들의 지혜로운 교육 강조 사상 때문이었다.

전체주의의 악몽에 시달렸던 한나 아렌트는 어린 시절 질병으로 인해 10주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다. 아렌트의 어머니 마르타 콘 아렌트(Martha Cohn Arendt)가 작성한 “우리이야기”라는 제목의 아렌트에 대한 육아 일기를 보면, “그는 10주 동안 학교로부터 격리되었다. 우리 둘은 서로 의지하면서 재미있고 행복한 10주를 보냈다. 학교의 시간표에 따라 책으로 라틴어 학습을 잘 하였기 때문에 그는 학교로 복귀하였을 때 최고 점수를 맞았다.”⁴³⁾고 적혀있다. 어머니 마르타 콘 아렌트는 11살 된 한나 아렌트에게 교육 받을 기회가 지속되길 원했다. 어머니들은 주변 역사적 특수성이 무엇이건 간에 자녀 교육을 멈추지 않았다. 고려인 화가 신순남과 그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고려인 여성들의 자녀 교육 사상에 대한 한 단편이지만 고려인 어머니들의 지혜를 대변하고 있다.

41) 심영섭, 김계르만, 『카자흐스탄 한인사 고문서 자료 제1집』, 109.

42) 이철우, “시베리아철도와 고려인들의 이주과정: 스탈린시대 강제이주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006), 45-79.

43) 엘리자베스 영-브뤼, 『한나 아렌트 전기: 세계 사랑을 위하여』, 80.

신순남은 1976년 소련 문화부 선정 ‘우수작가’ 회장을 수상하였고, 199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금관 문화훈장’ 수상한 ‘동양의 피카소’라 불리는 고려인 화가이다. 1937년 당시 9세 소년이었던 신순남은 연해주 땅에서 가족과 함께 추방되어 중앙아시아에 보내졌고, 카자흐스탄에 잠깐 살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정착하였다. 그는 당시 자행되었던 강제 이주 과정에 대해 “검은 까마귀” 같은 기차 안에 쭈셔 넣어져, 아시아의 ‘부헨바디드 치르착’으로 보내졌다. 16년 동안 황량한 늪지에서 노새처럼 일했다”고 표현한다.⁴⁴⁾ 어린 신순남이었지만 그날의 기억들은 생생하다. 신순남은 아버지를 4살 때 여의고 어머니도 재가하는 바람에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석유희 할머니는 일곱 손주들을 척박한 땅에서 디아스포라인의 삶속에서 키워야 했다.

석유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만들어 냈다. 신순남은 주경야독을 하며 살았다. 세베르니 마야크 콜호스에서 일하고 야간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레닌그라드로 가서 그림 공부를 하길 원했다. 그러나 공민증이 없었기에 불가능했다. 석유희는 손주의 교육에 대한 집념을 버릴 수 없었기에 손자를 집단농장에서 도망치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신순남은 우즈베크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벤코프 미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⁴⁵⁾ 만약 석유희 할머니가 신순남에게 교육을 강조하지 않았고, 고려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순남의 “레퀴엠” 작품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발휘한 기지로 인해 강제 이주 잔혹사를 그림으로 오늘 이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고려인들이 추방을 당해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리면서 미래를 기대하며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석유희와 같은 여성들이 교육열을 지혜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교육만이 ‘검은 까마귀’ 기차를 멈추게 하는 제동 장치였다. 석유희 외에 교육을 강조한 어머니들 가운데 한세르게이의

44) 신순남, 『떠도는 자의 자화상 신순남 창작노트』, (서울: 문화관광부, 2007), 6.

45)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282.

어머니가 있다. 한세르게이의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두려는 아들에게, “전쟁이 끝나면 나라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 우리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란다”⁴⁶⁾라고 말하면서 교육을 강조하였다. 한세르게이는 공부를 마치고 이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국립대학 총장까지 지냈다. 강제 추방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부모들은 배우지 못해 감내해야 했던 머슴살이를 더 이상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었다.

연해주에서 추방당해 중앙아시아에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피눈물 나는 고난을 지혜로 이겨냈다. 고려인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말이다. 미래 지향적 사고를 지닌 고려인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부재한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자랑스러운 고려인으로 키웠다. 1960년대 이후로부터 소련에서 고려인들의 사회진출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⁴⁷⁾ 고려인 자녀들은 학자, 교사, 의사, 건축가, 엔지니어, 법률가,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였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박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교수(1931-2010, 러시아 학술원 산하 동양학대학원의 한국 및 몽골학과에서 최고연구위원 역임)의 아버지는 일본침자로 몰려 1937년 6월에 소련 보안당국인 내무인민위원부에 체포되었고 1937년 9월 2일에 총살당하였다.⁴⁸⁾ 박보리스 가족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추방되어 러시아의 아스트라한에 처음 도착하였고, 카자흐스탄의 구리예프에 잠깐 머문 후 어머니의 친척이 사는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하게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하는 도중 할머니와 어린 막내 동생이 사망하게 된다. 박보리스의 인터뷰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보리스 어머니의 참혹한 삶을 상상 할 수 있다. 남편 없이 가족을 책임지고 이주 보따리를 싸야 했던 어머니는 박보리스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면 이주의

46)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281.

47)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307.

48) 황영삼, “고려인 학자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교수의 구술생애사-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 생활 시기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30 (2008), 3-50.

여정에서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통한의 디아스포라 삶을 살았다. 이런 어머니들을 통하여 자녀들은 미래를 지향하는 지혜를 배웠고, 신순남의 연작 작품 “레퀴엠”이 이를 말해 준다.

신순남은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연작 “레퀴엠”을 제작했다. 신순남은 “레퀴엠”을 1990년에 처음 전시할 수 있었는데, 1989년 9월 러시아가 강제 이주시킨 소수 민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진 이후였기에 비로소 전시가 가능했다. 캔버스에 붓을 대기 시작 한지 10년이 지나서야 “레퀴엠”이 세상 빛을 본 것이다. 제작 초창기 신순남은 전시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지 못한 채 작품을 시작했다.⁴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레퀴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의 할머니가 손수 보여준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장가”라는 신순남의 시를 인용하자면, “잡초 우거진, 축축한 움막에, 백발 성성한 할머니 하나. 손자와 살았다. 하루 종일 논에서, 배를 주리며, 남루한 차림으로, 노동하며, 손자 곁에 앉아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다. 어둠속 기운 없는 머리로, 꾸벅 꾸벅 졸다가 깨어나면, 다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자장, 자장, 잘자라.”⁵⁰⁾ 할머니의 노동은 고되었지만 신순남을 키워야 한다는 일념은 자장가를 부르면서도 지칠 줄 몰랐다. 할머니와 고향 땅에서 추방당한 고려인들은 아무런 정체성도 지니지 못한 부초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신순남은 “레퀴엠”에서 눈, 코, 입을 그리지 않고, 동그란 얼굴형으로만 고려인을 표현했다. 신순남은 고백한다. “우리는 노예였다. 노예에겐 이름도, 국가도 없다. 그래서 얼굴도 없다.”⁵¹⁾

어느 국가나 사회가 얼굴을 부여한 적이 없는 할머니였지만, 신순남에게 그녀는 ‘한국의 성모 마리아’였다. 할머니는 양상한 체형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점심때도 쉬지 않았고 들판에서 양식거리를 찾아 다녔다. “초록의 한국인 성모 마리아— 어머니 할머니 ... 제대로 먹지 못한

49) 김명훈, “신순남의 <레퀴엠> 연작 연구: 강제이주의 기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18.

50) 신순남, “자장가,” 『떠도는 자의 자화상』, 221.

51)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343.

채 우릴 먹이고, 다섯 명의 일을 혼자 했다. 모든 한국의 성모 마리아들 처럼 가족을 지키고 ... ‘북쪽 등대’의 성모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 장난꾸러기 손자들을 보시며.”⁵²⁾ 이 시에 드러난 신순남의 할머니의 삶에 대한 찬사는 잠언 31:28-31의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찬양과 같다. 어머니는 훌륭한 여인⁵³⁾의 삶을 살았다.

잠언의 가장 마지막 부분(잠 31:28-31)이 훌륭한 여인에 대한 찬사로 마무리된다. “자녀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잠 31:28-29).” 28-29은 가족들이 보내는 훌륭한 여인에 대한 찬사이고, 30-31은 공동체가 보내는 여인에 대한 찬사이다.⁵⁴⁾ 자녀들은 일어나서 어머니를 복되다 ‘와에이슈르하(וַאֲשֻׁרָה)’하며 남편은 아내를 찬양 ‘와에할렐라후(וַאֲהַלְלָהּ)’한다. 김정우는 29절에 등장한 남편이 ‘할렐루야 소리를 듣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⁵⁵⁾ 비록 잠 31:1-9과 10-31이 본문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뉘지만, 31:2에서 강조된 모자 관계는 31:28에서 다시 자녀와 어머니 관계로 강조되는 바, 잠언 31장은 교훈을 강조하는 여성 지혜시라 할 수 있다. 잠언 31:10-31의 장르는 히브리어 알렐(א)부터 시작해서 타우(ת)로 끝나는 아크로스틱 시(acrostic poem)이다. 특별히 볼터스(Al Wolters)는 잠 31:10-31을 영웅시로 구분한다.⁵⁶⁾ 여성이

52) 신순남, “북쪽 등대”의 성모 마리아, 『떠도는 자의 자화상』, 231.

53) 히브리어 ‘에셋트 하일(אֵשֶׁת חַיִל)’에 대한 한국어 해석은 다양하다. ‘현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 ‘좋은 여인.’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에 따라 ‘훌륭한 여인’으로 번역한다. (캐롤 A. 뉴섬, 샤론 H. 린지 엮음,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 구약편』 이화여자신학원구소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402-403). ‘에셋트 하일’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민영진, “현숙(賢淑)한 아내나, 유능(有能)한 아내나” 잠언 31:10-31, 『성경연구(설교자를 위한)』 70 (2000), 42-59. 이영미, “한글 성서 번역의 양성평등적 언어 활용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 연구』 19 (2006), 47-68. 김유기, “잠언 31장 10절 <에셋트 하일>의 의미,” 『장신논단』 40 (2011), 119-141.

54) 김정우, 『성서주석 잠언』, 823-825.

55) 김정우, 『성서주석 잠언』, 824.

56) Al Wolters, “Proverbs 31:10-31 as Heroic Hymn: A Form-Critical Analysis,”

복되다고 불리며 찬양을 받는 것은 영웅의 행동을 지혜롭게 실천하였기에 그녀의 외모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서 찬사를 받는 것이다.

눈, 코, 입을 구분조차 할 수 없는 “레퀴엠”에 등장한 고려인 여인들은 잠언 31:30에서처럼 외모에서 보이는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아니었다. 신순남은 고려인 여인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다. “초록 언덕에서, 어머니의 대지... ‘가슴속에서, 하얗고 빨간 비단 천에 쌓여 죽을 때 까지, 자랑스런 딸로, 친 자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중히 보듬어라.”⁵⁷⁾ 잠언 31:30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찬사를 받는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녀의 생명을 허락한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는 석윤희와 같은 고려인 여성들을 신순남의 시 “연어 떼들”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조국의 인어들이, 친정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휴식을 취하고, 자식들을 위해 집을 짓고, 좀 더 아름답게 집을 꾸미고, 과일이 열리는 정원을 만들고, 오월에 꽃피는 라일락을 심고,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재산을 모아 저축하고. 조상들의 혼령을 극진히 모시고, 조상의 사당엔 촛불을 켜 놓고, 매일 꽃과 음식을 차려, 생명수를 마시며 기도한다.”⁵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그들의 기도는 교육의 지혜를 넘어 생명의 지혜를 향한 것이었다.

4. 생명의 지혜: 김슈라(2008년 당시 88세)

- “고려인은 골이 일으려 한다.”

고려인 여성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가계를 꾸리는 일은 희

Vetus Testamentum 38 (1988), 449.

57) 신순남, “자장가,” 『떠도는 자의 자화상』, 227.

58) 신순남, “연어 떼들,” 『떠도는 자의 자화상』, 313-315.

생을 담보로 시작되었다. 그러한 희생은 생명의 담지자들의 결단에서 가능한 것이다. 김블라지미르의 회상에 의하면, “큰아버지는 노동자라서 매일 600그램의 빵을 배급받고 있었고 또 그는 매일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일 큰 조각을 잡수셨다. 큰어머니는 언제나 빵을 썰어 온 식구에게 나눠준 후 제일 작은 조각을 잡수셨고 언제나 식사 후면 상에 널려 있는 빵 부스러기를 손바닥으로 모아 잡수시곤 했다.”⁵⁹⁾ 고려인 여성들이라고 배가 고프지 않았겠으며 큰 조각의 빵을 먹고 싶지 않았겠는가? 여성들은 미시적 욕안에 머무르지 않고 거시적 해안을 지니고 있었다. 고려인 여성들은 농사일 등 노동에 전념하였다. 가사일 외에 노동을 중시한 이유는 바로 여성들이 부양해야 하는 식구들의 생명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제 생명의 담지자 역할을 한 고려인 여성 김슈라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담긴 디아스포라 여인들의 생명 지혜를 보고자 한다.⁶⁰⁾ 김슈라 할머니의 경우 자신의 자녀 일곱 명과 시 조카 세 명을 양육하며 살았다. 성질이 급한 남편은 오히려 자신의 조카들에게 화를 내고 술주정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김슈라는 시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길렀는데, 한번은 일곱 살 난 조카가 “이 집에서 아주머니가 좋은 사람이니 내 이렇게 산다.”고 말할 정도였다.

고려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 쓰크보르쭈브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고려인들이 어떻게 다른 민족보다 지혜롭게 농사를 지었는지 보여주는 편지이다. 이 편지에 의하면 연해주에서 한인들이 추방당하기 전에는 수수가 대대적으로 생산되었는데, 지금은 작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수를 재배할 수 있도록 수수 씨 백 톤을 공급해 줄 것을 청원한다는 것이다.⁶¹⁾ 농작물은 고려인들이

59) 김블라지미르,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 231.

60) 곽충구, 『중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과주: 태학사, 2009).

61) 심영섭, 김게르만, 『카자흐스탄 한인사 고문서 자료 제1집』, 366.

생존하는 곳에 열매를 맺었으며 그들이 움직이는 유라시아의 이주로를 따라 생명의 씨앗도 뿌려졌다. 지혜로 삶을 이어가는 고려인들을 보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고렷사람들 정말 머저리는 없다.”⁶²⁾ 감탄하였다.

농사일을 생각하면 남자들이 주도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김슈라의 남편은 트랙터를 운전하였는데 농사일에는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슈라에 의하면, 남편을 기다리다 보면 아무 일도 되지 않았기에 스스로 밭씨도 뿌리고 모를 심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슈라는 모내기를 하는 동안 “네 골이 일으려 한다”⁶³⁾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머리를 잘 쓰면서 농사를 지었음을 알려주는 말이다. 지혜롭게 농사짓는 여성을 찬사하는 말이다.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김슈라의 증언은 남자들이 부재한 가운데서도 고려인 여성들이 농사일에 혁혁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해 주는 말이다. 우즈베키스탄에 살던 고려인 여성들은 ‘무’(無)에서 노동영용을 배출하였다. 전 시에는 아버지와 남편들은 노동 군인으로 착출되었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에 있는 비행기 공장으로 많은 젊은 남자들이 잡혀갔다.⁶⁴⁾ 그러나 남자들이 부재한 가운데서도 콜호즈에서는 예전과 다름없는 쌀, 목화, 채소류와 과일이 생산되었다.⁶⁵⁾ 노인과 어린이가 남아있는 마을에 농사를 지을 사람은 여성들뿐이었다. 고려인 여성들은 거주권이 제한되어 있고 이주의 자유가 박탈된 고단한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을 부양한 것이다. 스탈린의 슬라브 민족 중심의 대(大)러시아주의는 ‘민족과 민족적 편견에 대한 양보정책’을 주장하여 결국은 소수 민족 강제 추방안을 만들었다.⁶⁶⁾ 소수민족은

62) 곽충구,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 459.

63) 곽충구,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 523.

64) 곽충구,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 503.

65) 기계형, “젠더의 시각에서 본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여성의 행위자로서의 경험과 역사적 기억을 중심으로,” 84.

66) 전병국, “소련의 민족 정책과 고려인 강제 이주,” 『일본연구』 15 (2010),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면 소멸될 것으로 여겨졌다. 소수민족의 특성을 무시하며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위해 개인의 생명과는 무관한 정책을 세운 것이다. 이러한 전체주의는 소수민족에 속한 개인을 파멸시켰고, 고려인 여성들에게 노동, 가사, 육아, 노인 부양이라는 다중 고난을 양산시켰다.

적박한 땅으로 고려인을 추방하며 전체주의가 기대한 것은 민족의 ‘양보’가 아닌 민족의 ‘소멸’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고려인 여성이 지니고 있던 ‘생명성’(生命性)을 간과한 것이다. 고려인 여성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은 지혜의 씨앗이 중앙아시아에서도 꽃필 것이라는 것을 전체주의자들은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다.

고려인들에게 처음에 주어진 콜호즈는 처참한 죽음의 집단농장이었다. 한인 콜호즈 조사자료들에 보면 알마아타주 까라딸 구역에 대한 상황이 보고되어있다. ‘블류헤라’라는 콜호즈에서는 80명의 아동이 사망하였고, ‘뻬오네르’ 콜호즈에서는 주민의 절반이 환자라는 보고가 있다.⁶⁷⁾ 그런데 고려인들이 콜호즈에서 노동과 삶을 시작한 이후 풍요롭게 생산하는 생명의 지혜가 펼쳐졌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인 노동 영웅인 김병화의 생산력과 조직력에 탄복하여 ‘김병화 콜호즈’가 탄생되기도 했다.⁶⁸⁾ 이는 고려인들이 그들의 생명력과 지혜를 가지고 콜호즈를 확장시키고 살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느 민족보다 토지를 통해 생명력 있게 가정과 사회를 일궈간 것이다. 잠언 31장의 훌륭한 여인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잠 31:16-17)”하였듯이 고려인 여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며 생명을 일궈나갔다. 고려인 여인들은 10절의 ‘훌륭한 여인’(에셰트 하일)들인데, 하일의 뜻이 주는 바, 힘 있고 강건하며 용감하기 때문이다.

590-593.

67) 심영섭, 김계르만, 『카자흐스탄 한인사 고문서 자료 제1집』, 135.

68) 강현모, “우즈베크 고려인 영웅, 김병화 서사담 연구,” 韓國言語文學 93 (2015), 111-133.

고려인 여인들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당국에 투서를 전달함으로써 희생된 자들의 억울한 생명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성학은 극동지방 빨치산 활동으로 항일 운동에 참가했고 해군 함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1935년 12월 군함에서 체포되어 1938년 10월 26일에 총살당하였다. 그런데 가족들은 최성학의 생사 여부를 1992년 3월 19일에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이는 그가 사망한지 54년이 지나 서야 드러난 진실이었다. 최성학의 누나 최소피아 빼뜨로브나는 당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검찰총장 루젠코에게 1954년 9월 14일 편지를 보내 동생의 생사를 확인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⁶⁹⁾ 최소피아는 동생이 어딘가에 살아 있을 수도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안고 “형이 언도된지 16년이 흘렀으나 동생은 돌아오지 않고 동생에 대한 그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⁷⁰⁾라는 청원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최성학이 함대에 있을 때 우수 근무자로서 표창장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청원서에 덧붙이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최소피아의 청원서는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으며, 이는 김슈라가 땅을 일구면서 10명의 자녀와 조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고려인 여성들의 생명에 대한 지혜는 농사일을 하면서 드러났다. 김슈라가 콜호즈에서 목화송이를 키우던 때에 대한 설명은 여성들의 노동 삶에 드러나는 지혜를 반영하고 있다.⁷¹⁾ 김슈라가 목화송이를 재배하는 장면과 잠언의 훌륭한 여인이 물레질 하는 장면(잠 31:19)에서 여성들의 목화 재배에 녹아있는 지혜로움을 목격하게 된다. 잠언의 훌륭한 여인은 목화를 재배하고 목화 실을 뽑아내는 탁월한 기술을 지니

69) 리 블라지미르 표도르비치 (우효), 김 예브게니 예브게니예비치 (영웅), 『스팔린 체제의 한인 강제 이주: 구소련 국립중앙문서보관소 공개 극비문서』 김명호 역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249-250.

70) 리 블라지미르 표도르비치 (우효), 김 예브게니 예브게니예비치 (영웅), 『스팔린 체제의 한인 강제 이주』, 249.

71) 곽충구,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 487.

고 있으며 부지런하다.⁷²⁾ 잠언의 여인이나 고려인 여성의 노동은 생명을 위한 지혜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성이 존재하는 곳에서 항존하고 있음을 보인다.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잠 31:19) 물레질을 하면서 여성들은 지혜를 깨닫고, 새 생명의 실타래를 뽑아갔다.

잠언 31:10-31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⁷³⁾ 훌륭한 여인의 가치(10-12), 훌륭한 여인의 활동(13-27), 훌륭한 여인에게 바치는 찬사(28-31). 그리고 잠 31:13-27은 노동과 무역(13-18), 노동과 구제(19-20), 노동과 가정(21-21), 노동과 지혜(24-31)로 다시 세분화된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마치 산업 역군⁷⁴⁾으로 용기 있게 자신의 일을 처리한다. 여성들은 사회와 가정에 걸쳐 다양한 방면에서 지혜를 용감하게 드러낸다. 고려인 여인들이 강제 추방되어 매일 매일의 삶을 살면서 그들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지혜를 모아 생명의 담지자 역할을 할 때 여호와의 칭찬이 함께 한다(31).

나가는 말: 다중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여성의 역할

한반도를 떠난 고려인들은 집단적, 다중적 디아스포라를 경험하였다. 그들은 1860년대에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일구기 위해 연해주로 향하였다. 이 후 1939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은 그들을 다시 중앙아시아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만들었다. 슬라브 민족이 아닌 고려인들. 일본 첩자라는 누명을 쓴 고려인들. 그들은 디아스포라를 혹독하게 견뎠으며 오늘의 러시아에서 50만 명의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

72) 김정우, 『성서주석 잠언』, 818.

73) 김정우, 『성서주석 잠언』, 809.

74) 레오 G. 퍼듀, 『잠언』, 353.

다. 스탈린의 전체주의는 고려인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그러나 오늘도 그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세계의 디아스포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광야에서 피어난 생명력은 디아스포라 고려인 여성의 지혜로움에서 가능하였다. 마치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여성 지혜가 포로기 이후의 디아스포라의 삶을 영위토록 했던 것처럼 말이다.

잠언 31장의 훌륭한 여인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 여인으로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잠 31:31)을 받을 것이다. 지혜로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혜로 공의를 내세운다. 그리고 그녀는 경건한 노동을 강조하고 자녀들로부터 찬사를 받는다. 한나 아렌트도 지혜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아렌트는 ‘선한 법’(good laws)에 의한 통치와 전체주의적 사고로 선포된 ‘법령’(decree)에 의한 통치를 비교한다. 아렌트는 선한 법이 바로 지혜로 제정된 법이라고 말하는데, 지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동기와 목적을 슬기롭게 알려주고 보편화된 원칙들로부터 추론된 법이기에 현명하다고 주장한다.⁷⁵⁾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고운 것도 거깃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잠언 31:30을 되뇌이게 한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법령들에 억매이지 않고 지혜의 도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자녀들에 생명을 제시할 것이다. 전체주의 사고의 망상으로 인해 죽음을 직면한 고려인 여성들은 ‘지혜’로 메마른 광야를 ‘옥토’로 일궈냈다.

항일 운동으로 저항했던 김알렉산드리는 평등한 인류를 꿈꾸며 자신의 목숨을 불살랐다. 신순남 화가의 할머니 석윤희는 손자의 재능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지혜를 모아 신순남의 미술 활동을 위한 초석을 제공한다.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 여성 김슈라는 지혜롭게 여성 농민의 삶을 살며 광활한 대지를 생명으로 이뤄냈다. 고려인 여성들은 자신의 목숨을 저항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생명을 보듬는

75)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244.

지혜로 디아스포라의 생명을 이어간다. 잠언 31장이 오늘에도 읽히며 지혜의 말씀을 전달하듯이 그들의 열매는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의 지혜는 전승될 것이다.

<주요어>

고려인 여성, 지혜, 잠언 31장, 저항, 교육, 생명, 김알렉산드라, 석윤희, 김슈라, 신순남

<Key Words>

Koryo Women, Wisodm, Proverbs 31, Resistance, Education, Life, Alexandra Petrovna Kim, Yoon Hee Seok, Shura Kim, Soon Nam Shin

* 접수일 2015년 8월 29일, 수정일 2015년 9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5년 9월 30일

참고문헌

- 강만길, 『강만길 역사기행 회상의 열차를 타고』, 서울: 한길사, 1999.
- 강현모, “우즈벡 고려인 영웅, 김병화 서사담 연구,” 『韓國言語文學』 93 (2015), 111-133.
- 곽충구,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경기도 파주: 태학사, 2009.
- 기계형, “젠더의 시각에서 본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여성의 행위자로서의 경험과 역사적 기억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12 (2011), 69-90.
- 김명훈, “신순남의 <레퀴엠> 연작 연구: 강제이주의 기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 김블라지미르,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 조영환 역, 박환 편, 해제, 서울: 국학자료원, 1997.
- 김정우, 『성서주석 잠언』,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서울: 주류성, 2013.
- 뉴섬, 캐롤 A. 린지, 샤론 H. 위음,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 구약편』,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리 블라지미르 표도르비치(우효), 김 예브게니 예브게니예비치(영웅), 『스탈린체제의 한인 강제 이주: 구소련 국립중앙문서보관소 공개 극비 문서』, 김명호 역,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 머피, 롤랜드 E., 『잠언』 WBC 22, WBC 주석번역위원회 역, 서울: 솔로몬, 2001.
- 박지은, “여성 지혜에 나타난 여성의 소외: 잠언 1-9장과 31장을 중심으로,” 『여성신학논집』 10 (2013), 1-22.
- 박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서울: 탐구당, 1997.
-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항일여성운동 1909~1920,” 『역사문화연구』 23 (2005), 87-130.

- 신순남, 『떠도는 자의 자화상 신순남 창작노트』, 서울: 문화관광부, 2007.
- 심영섭, 김게르만, 『카자흐스탄 한인사 고문서 자료 제1집』 알마아타, 서울: 알마아타 한국 교육원, 1998.
- 양창삼, “[인물과 사상] 한나 아렌트 연구,” 『현상과 인식』 9:2 (1985), 189-216.
- 영-브뤼엘, 엘리자베스, 『한나 아렌트 전기: 세계 사랑을 위하여』 홍원표 역, 고양: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7.
-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강제이주담에 대하여,” 『한민족문화연구』 38 (2011), 451-481.
- 이철우, “시베리아철도와 고려인들의 이주과정: 스탈린시대 강제이주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006), 45-79.
- 이현영, “1910년대 사회운동과 김알렉산드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4.
- 전병국, “소련의 민족 정책과 고려인 강제 이주,” 『일본연구』 15 (2010), 585-603.
- 정 갈리나 드미트리예브나, “소련 한인 강제이주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활천』 559: 6 (2000), 101-103.
- 퍼듀, 레오 G. 『잠언』, Interpretation, 현대성서주석 한·미 공동 주석 편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 황영삼, “고려인 학자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교수의 구술생애사- 중앙 아시아 및 시베리아 생활 시기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30 (2008), 3-50.
-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2nd enlarged ed., Cleveland: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58.
- Bird, Phyllis A., *Missing Persons and Mistaken Identities, Women and Gender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Camp, Claudia V., “The Wise Women of 2 Samuel, A Role Model of Women in Early Israel?” Alice Bach, ed., *Women in the Hebrew Bible, A Reader*, New York: Routledge, 1999.
- Wolters, Al, “Proverbs 31:10-31 as Heroic Hymn: A Form-Critical Analysis,” *Vetus Testamentum* 38 (1988), 446-457.

<초록>

디아스포라 여성의 지혜

-고려인 여성의 '삶'으로 읽는 잠언 31장-

박혜경

(대만 장영 대학, 구약학)

1945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다. 그러나 해방 70주년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역사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망각 된 이들이 한국사에 현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로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다.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시리아와 바벨론 등에 의해 디아스포라를 경험하였듯이 고려인들은 한반도 고향 땅을 떠나 연해주를 거쳐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강압적으로 추방을 당하였다. 이 추방은 스탈린의 1937년 강제이주 정책의 결과였으며 전체주의에 의해 양산된 세계적 모순의 결과를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고려인들의 삶은 죽음과 직면하게 되었고 피폐화 되었다.

더욱이 한반도 구성원들이 그들을 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러시아에서 고려인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필자는 그 힘의 동력을 고려인 여성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에서 보며, 생명력은 지혜로 점철되어 있음을 본다. 잠언에 등장하는 여성 지혜가 이스라엘에게 귀감이 되었듯이 고려인 여성들은 지혜로운 여성들이었으며, 그들은 스탈린의 강제 추방 정책에 대항한 자들이다. 따라서 본 글은 김알렉산드라, 석윤희, 김슈라라는 고려인 여성 3인의 삶을 회고하면서 잠언 31장의 여성 지혜와 해석학적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지혜로 점철된 삶을 살았으며, 저항으로, 교육으로, 생명으로 디아스포라의 삶

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잠언 31장은 포로기 이후의 삶의 자리를 반영하기에 잠언의 편집층과 독자층 역시 디아스포라 삶에서 가장 필요한 여호와의 말씀을 가정과 여성의 지혜에서 체득하게 된다. 고려인 여성들처럼 말이다.

<Abstract>

The Wisdom of the Diaspora Women: Reading Proverbs 31 in the Life of Koryo Women

Prof. Hye-kyung Park

(Chang Jung Christian University, Taiwan)

The year 2015 is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s 1910-45 colonial rule. We Koreans continue to celebrate freedom and independence from Japan's colonization. However, the suffering of the Koryosaram has been unfairly consigned to oblivion in the blissful history of Korea. The Israelites of the Old Testament experienced diaspora under the control of both Assyria and Babylon, Likewise, Stalin's 1937 Diaspora policy forcefully displaced the Koryosaram from Maritime Province in Russia to Cental Asia. The deportation devastated the Koryosaram because Stalin's totalitarianism aimed to exploit the identity of minority races. Moreover, his policy toward the Koryosaram has been basically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evention of Japanese espionage. During the exile, the Koryosaram were faced with death no matter what interest they pursued.

Nevertheless, the Koryosaram have dynamically earned a living

in Russia and Central Asia without much disappointment in life after having been forcefully uprooted from their homeland by the powerful structure. Koryo women's wisdom infused the life of the Koryosaram. As women's wisdom in Proverbs became a model of virtue wherever women survived ordeals, Koryo women used their wisdom in multiple ways through resistance, education, and giving birth to lives. The living stories of three Koryo women — Alexandra Petrovna Kim, Yoon Hee Seok, and Shura Kim — remind us of the importance of wisdom in the barren land. In addition, their wisdom-centered life opens the horizon of the hermeneutic dialogue with the woman wisdom in Proverbs 31.